와이즈유 영산대학교(총장 부구욱) 게임VR학과가 재학생과 전문업체가 함께 게임‧VR(가상현실)‧AI(인공지능) 콘텐츠를 개발하는 ‘일경험 프로젝트’를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.이 프로젝트는 3~4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다. 재학생이 학과 교수를 멘토로 삼아 전문업체가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융합형 현장교육이다.멘토 교수로는 게임VR학과 임상국 학과장과 프로그래밍 분야 김태환 교수가 참여했고, 전문업체로는 ㈜사운드리더, ㈜노마드랩 등이 동참했다.참여학생들은 실무교육(2주), 팀별 프로젝트 수행(8주) 등을 거친다. 무엇보다 실무역량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. 장비구매비, 활동비, 교재비 등도 지원된다.게임VR학과 임상국 학과장은 “전문업체, 현업의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전문성을 익히면서 결과물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교육방법”이라고 말했다.한편 영산대 게임VR학과는 실무중심 산학일체형 교육을 바탕으로 게임콘텐츠 제작‧개발 및 미래 게임, VR산업의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.